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23(금) ~ 2024.8.29(목)

제공일시 2024 09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8.23(금) ~ 2024.8.29(목)

제공일시 2024 09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세계 최초 폐쇄 원자로 재가동 추진 본격화... 허가 기간 60~80년 연장

- 미국이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의 발달과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서둘러 공급하려고 이미 폐쇄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함
- 세계 주요 원전 운영 국가들이 수리 또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일시 가동 중단 상태였던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있으나, 완전히 폐쇄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은 미국이 처음임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지난해에만 정부 당국에 12개 노후 원자로의 사용 허가 연장 신청을 했다”면서 “미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94개 원자로의 거의 전부가 60년 이상 사용 연장을 했고, 이중 2기 원자로는 80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허가 기간을 2배로 늘렸다”고 보도함

[\(글로벌이코노믹 2024.8.28\)](#)

2. 캐나다, 中 전기차에 100% 관세... 알루미늄·철강엔 25%

-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6일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번 관세 조치는 캐나다 당국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한 지 30일 만에 발표됨

[\(한국경제 2024.8.26\)](#)

3. 퇴근 후 ‘연락 받지 않을 권리’... 호주, ‘법률’로 제정

- 호주 정부는 의회에서 제정된 ‘연결 차단 권리’에 관한 법(Right to Disconnect Law)을 2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감
- 이는 모든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 외의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을 무시할 권리에 관한 법임. 직장이나 회사 측도 업무 시간 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선불리 그 구성원들에게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하면 위법행위가 됨
- 호주 직장인들은 이제 새로운 ‘차단의 권리’를 보장한 법률 덕분에 가정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게 됨. 이 법은 대부분의 경우 직원이 업무 시간 외에 고용주가 보내온 문자를 외면하거나, 답장하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함

[\(재외동포신문 2024.8.26\)](#)

국내 정책

1. 환경부 내년도 예산 14.8조...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임
- 특히, 녹색산업과 관련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배터리 안전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임
-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
-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의 방점을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에 둠

[\(이데일리 2024.8.28\)](#)

2. 반도체 생태계 지원 패키지 26조... 바이오·2차 전지도 전략적 육성

- 정부가 26조원을 투입해 반도체산업 종합지원에 나섬. 반도체 설비투자를 위한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신설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전략산업 투자도 확대함
-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편성된 내년 예산이 28조3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1%(3000억원)가량 늘어났다고 밝혔
-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을 담아 산업의 전 영역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예산안에 담음
- 또,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한국형 연구개발 과제를 활성화하고 제조 등도 지원함

[\(이데일리 2024.8.27\)](#)

3. 탄녹위, 건물에너지 총량제 전국 확산방안 본격 논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6일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탄녹위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의 후속 논의로, 서울시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와 국토부·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총량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됨
- 국토부는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총량제한 권한 및 책임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 산업부는 향후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범 추진 등 건축물 유형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

[\(뉴스핌 2024.8.26\)](#)

글로벌 기업

1. 암모니아, 메탄올... 대체 연료로 운항되는 세계 최초 선박들 속속 등장

-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배가 항해에 나설 예정임. 26일(현지시각) 핀란드 엔진 제조업체 바르질라(Wartsila)는 노르웨이 해운사 아이데스빅(Eidesvik)와 함께 플랫폼 공급선(PSV) '바이킹 에너지(Viking Energy)'를 암모니아 연료 기반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개조할 것이라고 밝힘
- 로이터는 개조 작업이 2026년 초 완료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에는 바이킹 에너지호가 암모니아 연료로 운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함

[\(임팩트온 2024.8.28\)](#)

2. 토요타-BMW, 수소연료차 위해 맞손... '궁극의 친환경차' 생산 가속화

- 일본 토요타자동차와 독일 BMW가 협력해 '수소연료전지차(FCV)' 차량 개발에 나섬. 27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에 따르면, 토요타자동차와 BMW는 다음달 3일 FCV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5일 BMW 미디어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임
-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소 관련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표준화해 FCV의 가격을 낮출 계획임. 토요타자동차는 수소 탱크와 연료전지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는 구동 시스템 등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함

[\(뉴스1 2024.8.27\)](#)

3. 대만 폭스콘 "인도·멕시코 투자 확대... 전기차 만들겠다"

- 애플 최대 협력사 대만 폭스콘(홍하이정밀공업)이 인도와 멕시코 지역 투자 확대에 나섬. 25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류양웨이 대만 폭스콘 회장은 최근 3연임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폭스콘과 인도의 산업 발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함
- 그러면서 현지 시장의 발전 상황에 따라 폭스콘의 적절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도와 멕시코 시장의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디지털타임스 2024.8.25\)](#)

4. 벤츠, 배터리 외 첨단 기술도 中 기업과 협력 강화

- 메르세데스-벤츠가 배터리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현지 신생업체 투자를 늘리고 있음
- 22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중국법인은 최근 볼케이노엔진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벤츠는 볼케이노엔진과 함께 클라우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차량에 탑재하는 첨단 기술 개발을 확대해 스마트 콕핏(cockpit-운전석) 등에 적용한다는 방침임

[\(조선일보 2024.8.22\)](#)

국내 기업

1. 현대차 10년간 120.5조 투자... “현대웨이”로 전기차 시장 리딩

- 현대자동차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2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선언함. 현대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톱 티어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 현대차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전동화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기차 모델을 확대할 계획임. 또, 2030년까지 보급형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개발에 나섬

[\(뉴데일리 2024.8.28\)](#)

2.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안 통과... 초대형 에너지 기업 탄생

-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27일 주주총회를 통과함. 이에 따라 올해 11월 자산 100조원의 초대형 에너지기업이 탄생함

-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오전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E&S와 합병 계약 체결 승인 안건이 참석 주주 85.76%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힘. SK E&S도 이날 주총을 열고 양사 합병안을 승인함.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임

[\(아이티조선 2024.8.27\)](#)

3. ‘쉐브론 낙수 효과’ GS칼텍스, 서부 호주 CCS 프로젝트 참여

- GS칼텍스가 쉐브론이 호주에서 추진하는 해상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함. 26일 GS칼텍스에 따르면, 회사는 쉐브론과 호주 최대 석유개발업체 ‘우드사이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 지분 5%를 양도받음. 쉐브론이 가진 지분 70% 중 5%를 GS칼텍스에 넘기고, 우드사이드는 30%를 보유함

- GS칼텍스는 이후 양도 승인 등 기타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게 됨. 쉐브론에 직접적으로 지분 가치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진행될 탐사 활동에 참여하는 대신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얻음

[\(더구루 2024.8.26\)](#)

4. 삼성SDI, 美 첫 진출 파트너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전기차용 동박 공급받는다

- 올해 말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삼성SDI가 동박을 공급받을 파트너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를 낙점함.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삼성SDI-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에 동박을 공급할 예정임

- 23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미국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에너지(SPE)는 동박사 중 유일하게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로 함

[\(한국경제 2024.8.23\)](#)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8.23(금) ~ 2024.8.29(목)

제공일시 2024 09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인도산 태양광 패널, 미국에서 첫 억류...강제노동방지법 규제 신호탄 터졌다

- 인도산 태양광 패널도 중국을 따라 미국 수출길에 빨간 불이 켜졌음. 인도는 미국의 대중견제로 생긴 중국의 빈자리를 틈타 대미 수출량을 늘려왔었음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2년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에 따라, 10월 이후 약 4300만 달러(약 575억원)의 인도산 전자 장비 선적을 최초로 억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CBP는 어떤 유형의 전자 장비를 억류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는 태양광 패널 관련 품목으로 추정하고 있음

- 로이터는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이 우선 제재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은 억류된 선적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해 왓기에 억류된 제품이 태양광 패널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 CBP가 억류한 전자 제품 전체로 볼 때는 이번에 억류된 인도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임

- 그럼에도 인도산 선적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점은 CBP가 강제노동 방지법을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해석됨

- 미국 대형로펌 와일리 레인(Wiley Rein)의 무역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인도에서 오는 태양광 패널에 중국산 셀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도 제품의 억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CBP가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중국의 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음

- 이번 조치는 인도의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에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음. 인도 제조사들은 강제노동 방지법으로 인해 생긴 중국산 수입품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전략을 펴왔음

- 미국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로부터의 태양광 제품 수입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하여 지난해 23억 달러(약 3조원)를 기록했음

- 시장조사 기관인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2024년 2분기에 인도는 미국 패널 수입의 11%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 분기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힘

- 인도산 제품이 억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CBP가 움직인 것은 이전부터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의 부품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 블룸버그는 지난 2월 인도와 미국의 수입기록을 조사했을 때, 인도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와리(Waaree)가 중국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수백만 개의 패널을 미국에 수출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음

- BNEF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제품은 지난해 11월 미국 태양광 수입량의 9.3%를 차지했으며, 2022년 전체 수입량 비중인 1.9%에서 증가했음

- 수입량은 2022년 0.6GW(기가와트)에서 2023년 11월에 1100만개 패널에 해당하는 4.4GW(기가와트)로 급증했음. 그 대부분은 와리의 제품이었음

- 인도의 주요 태양광 제조기업들은 수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인

- 와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도 아다니 그룹이 일부 선적이 억류됐었고 모든 선적이 풀려났음을 확인했다고 인도의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타임스는 27일(현지시각) 전했다. 아다니의 대변인은 “이 결과는 미국으로 수입된 당사 제품이 UFLPA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와리는 이코노믹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음

[\(임팩트온 2024.8.29\)](#)